

책과 더불어 사는 '모범장서가'들

창립 16년째 맞은 韓國藏書家會의 면면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의해 해마다 선정, 표창받은 '모범장서가'들의 모임인 '한국장서가회'가 창립 16년째를 맞았다. 오직 책이 좋아 책과 더불어 자고 새는 이들 모범장서가들은 전국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도 기관지「尙書」(年刊)를 중심으로 꾸준히 유대를 다져오고 있다.

11명 작고, 현 회원 44명

한국장서가회는 지난 72년 尙書會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창립당시 회원은 27명. 이후 회원은 해마다 늘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둘 작고하는 회원도 늘어갔고 연락이 끊긴 회원도 늘어갔다. 64년 이후 올해까지 출혈에 의해 '모범장서가'로 선정된 사람은 모두 67명. 그중 초대 회장을 맡았던 崔性章씨(전 중동고교 이사장)를 비롯, 朴基衍·吳漢根·閔東基·金鈺瑟·金鉉權·崔道和·李友燮·崔範勳·陳秉魯·朴舜秉씨 등 열한분이 작고했고, 12명은 중도에 연락이 끊어져 현재 회원은 44명 뿐이다.

작고회원 가운데 崔性章씨(78년 작고)는 중동고교 설립자이며 해방후 제3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白儂 崔奎東의 아들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장서를 포함, 5천여권의 장서를 갖고 있었다. 그는 모범장서가로 선정됐던 67년에 고향인 경북 星州군 가천면에 '백농도서관'을 설립, 기증하기도 했다.

吳漢根씨(74년 작고)는 특히 신문·잡지 수집가로 그 방면에서는 널리 얼굴이 알려진 인물. 늘 후술준한 잠바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신문사나 잡지사·출판사를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무료 기증'을 받는 식으로 수집에 열을 올렸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루라도 그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으면 도리어 궁급히 여겼을 정도로 오직 '수집'만이 인생의 전부인양 살았던 '고독한 奇人'이었다.

金鈺瑟씨(71년 작고) 역시 널리 알려진 書誌연구가. 그는 특히 실학·천주교관계 귀중본과 진귀한 고문서류를 다수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가 67년에 발표한 「古文書論考」(국회도서관보)는 이 방면의 업적으로 꼽힌다.

장서 수천권씩...사회각계서 활약

회원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특정분야에서 두각을 내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 그중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64년 제1회 모범장서가로 뽑혔던 鄭石謨씨와 鄭汝朝씨. 鄭石謨씨(59·민정당 전국구 의원)는 당시 치안본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했는데, 뒷날 내무장관·민정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鄭汝朝씨(57·수산개발사업 타당성조사전문위원)는 원로 어류학자 鄭文基박사의 아들로써 수산물 양식의 권위자. 일찌기 松魚알 30만알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 양식에 성공함으로써 오늘날 전국에 송어양식사업을 널리 보급시킨 장본인이다. 그래서 '송어의 아버지'란 별명을 듣고 있는데, 학계에서도 한국의 송어를 그의 이름을 따서 '汝朝松魚'라고 정식 명명했다.

건설협회장을 지낸 崔鍾聲씨(61)는 69년도 모범장서가. 당시 4천여권의 장서를 소장했던 그는 군대시절에도 독서가로 이름났었는데, 이후 건설부차관(64~69년)과 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호남 儒林에서 이름난 邊時淵씨(66·전남 長城)도 69년도 모범장서가. 그는 1만여권의 책을 소장, 호남의 대학교수나 한학자들이 자주 그의 서재를 드나든다. 한학에 조예가 깊은 그는 특히 文集을 비롯한 고서를 많이 갖고 있는데, 古文연구 전문잡지인 「文苑」을 자비로 꾸준히 발간해 오고 있다.

최고령 회원인 金觀鎬翁(82·萬海기념사업회 대표)도 그 방면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 萬海 韓龍雲의 제자로 일찌기 「만해全集」의 발간에 힘썼던 그는 불교관계 서적만 4천여권을 소장, 불교에 특히 조예가 깊다.

제주도 교육계에서 활약하는 申瑢俊씨(57·제주간호전문대학장)도 빼놓을 수 없다. 72년도 모범장서가(당시 제주도교육위 중등교육과 장학계장)인 그는 교육관계 책과 농업기술서 등을 주축으로 4천여권을 소장하고, 교육 전문지에 1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해온 학구파로 소문났다.

장서가 많기로는 현 회장인 辛永吉씨(63·경제평론가)가 으뜸이다. 재무부·경제기획원 등 공무원생활을 거쳐 주택은행 지점장을 정년퇴임한 그는 정치·경제·역사서를 중심으로 자그마치 4만여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서고는 물론 목욕탕에까지 책을 꼭 채우고도 남아서 벗가리마냥 마당에까지 쟁여놓고 있는 그는 "책 때문에 20여년간 이사도 못하고 있다"고 푸념(?)한다. 여기저기 경제관



지난 10월11일 '올해의 모범장서가'로 뽑힌 吳榮植씨(35·서울 普成고교 교사). 그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전공인 국문학관계 책들을 모으기 시작해 지금은 3천여권의 장서를 갖고 있다. 하루 한권꼴로 책을 산다는 그는 탈춤에도 조예가 깊다.

계 잡지에 글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 "매일 새벽 2시까지 책을 읽거나 원고를 쓰는"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현직 교사·교육계 인사 많아

회원 중에는 특히 현직 교사나 교육계 인물이 많은 것이 특징. 金鍊嶽(裡里 남성여고를 거쳐 현재 培材大교수), 許稷(서울·경신중학교), 玉米造(경남·국민학교 교감), 朴贊道(서울·중학교 교감), 金正培(서울·국민학교 교감), 林吉相(경북·星州여중 교장), 劉永昌(경북·榮州여중), 崔奭鏞(대구·달성중), 李錫範(서울·동구여상), 尹泰浩(경북·성주여중), 崔善應(강원·원주육민관고교), 孟康烈(충남·온양고교), 康精三(제주·국민학교), 吳榮植(서울·보성고교)씨 등이 현직이고, 盧在璣(58·아세아중교연구협회 이사장), 朴炳淳(70·시조시인), 朴晶尙(55·부산), 金鍾潤(58·수필가)씨 등도 교직생활을 거쳤다. 유일한 여성 모범장서가(79년도)인 金英淑씨는 당시 덕양중학교(경기도 고양군) 국어교사로 재직했었는데, 그 뒤 연락이 끊겼다.

이밖에 玉米造·朴太熙씨가 아동문학가, 車七善씨가 시조시인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박영사 편집부장 출신의 姜馨穆씨(58·관악출판사 대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비서실장 출신의 李敦煥씨(47·예림미술학교 이사장), 현직 문공부 공무원인 崔振用씨(50·출판과 사무관) 등이 눈에 띈다.

조금 특이한 인물로 朴永淳씨(52·부산은행)와 李昇基씨(49·전 예종 마산지부 사무국장)가 있다. 박영돈씨는 노무원·정원사·

은행 수위 등으로 전전하면서 왕성한 지식욕으로 수천권의 장서를 모아들여 데스크에도 자주 오르내렸다. 86년도 모범장서자인 이승기씨는 馬山지역의 독서운동가·문화운동가로도 명망이 높지만, 특히 서민층 시민의 결혼주례를 도맡아 '李主禮'란 별명으로 인기가 높다.

'책수집가' 아닌 '모범독서가'여야

이들 모범장서가들이 책을 모으게 된 사연이나 경위는 대개 엇비슷하다. 특히, 정기적으로 서점을 찾아 월수입의 일정액을 책값으로 할애하고 있는 점은 모두에게 공통된다. 다만 어떤 이는 '장서 불공개'원칙을 고수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서재를 개방하고 남에게 기꺼이 빌려주기도 하는 등, 장서관리면에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앞으로의 '모범장서가' 선정은 그 대상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리라는 점이다. 모범장서가의 자격요건이 "대학 교직자를 제외한 2천권 이상의 일반도서 소장자"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古書店이나 기웃거리며 財貨가치만을 겨냥해 무턱대고 사모으는 사람은 '책수집가'는 될지언정 '모범장서가'는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보다는 스스로 읽거나 참고하기 위해 한권 두권 그때그때 사서 읽은 책이 모이고 쌓여서 1천권이든 2천권이든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모범장서가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범장서가는 곧 '모범독서가'여야 하기 때문이다.